

부산보육교사회

2001년 마지막호



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5-15 11/1 ☎ 554-9668 H.P : 018-552-5116

Email : pdta2001@hanmail.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부산은행 241-01-000240-7 예금주 : 김명선

부산보육교사회

2001년 마지막호



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5-15 11/1 ☎ 554-9668 H.P : 018-552-5116

Email : pdta2001@hanmail.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부산은행 241-01-000240-7 예금주 : 김명선

회신교육보상부

호미저마 1002



회신교육보상부 부지선부 회신교육보상부

0110-220-010 : 9.11 0000-000 0111 21-2221 00000 0000 회신교육보상부

0110.0101.0101 : 0110000 (0110000) 0110000 0110000

0110 : 0110000 0110000 0110000

목 차

여는 글	1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2
아이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	5
까지 선생님의 육아 일기	7
신혼이라?	13
한보회 중간 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15
한일 보육교류 활동을 다녀와서	19
지회 및 회원 소식	24
알고있자구요!	30
보육소식	33
부산보육교사회 2001년을 돌아보며	35
환영합니다!	38
2002년이 활짝 열립니다	39

여는 글

눈

오세영

순결한 자만이
자신을 낳출 수 있다.
자신을 낳출 수 있다는 것은
남을 받아들이는 것,
인간은 누구나 가장 낮은 곳에 설 때
사랑을 안다.
살아있음 에는 겨울,
추위에 지친 인간은 제각기 자신만의
귀가 길을 서두르는데
왜 눈은 하얗게 하얗게
내려야만 하는가
하얗게 하얗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바닥을 향해 투신 하는
눈,
눈은 낮은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녹을 줄을 안다.
나와 남이 한데 어울려
줄줄줄 흐르는 겨울물 소리.
언 마음이 녹은 자만이
사랑을 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기른다.

정현옥 (서넛물 선생님)

- 교육부 주관으로 교사들의 아동관을 정리해보는 자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현옥 선생님이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아동관입니다. (편집부)

교사라는 직업으로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한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 이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저 애들이 좋아서...라는 막연한 동기에서 출발했던 것 같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이든 법인 어린이집 어느 곳에 다녀도 내 속의 어느 한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사실 원장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아이들의 머리수가 보육비와 동등하게 계산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보육과 교육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보이지 않는 학대를 받고 있었다.

나도 그저 월급 받는 교사로 한 달 한 달 조용히 지내면서 경력이나 쌓으면 될 것을 되지도 않는 뜻을 내세워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대안교육이라는 공동육아에 몸을 담기도 해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뜻을 모두 접고 과감히 사직서를 던지고 집에서 무언가 또 다른 길을 찾아 한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짧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5년간의 교사생활 동안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그 '위대한 모성이데올로기'란 것이 내겐 왜 그리 넘기 힘든 산인지 모르겠다. 하나같이 아이들의 보육을 생각하고, 진정한 부모는 그저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부르짖던 부모들은 어찌해서 자잘한 생활 속의 문제에서는 예전의 대범함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이기심에 찬 엄마로 돌아가는지 나는 아직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낳아보지도 못해서인지 절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부모라는 특권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이중성에 실망하면서 나는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 자체

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도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라 부모에게 경제적 운영을 기대어야하는 어린이집은 그것이 대안 교육이든 아니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부모와 아이들은 교사와 원장에겐 간접적으로 아니 다분히 직접적으로 고용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내게 아이들의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숙제로 남아있다. 집에서 쉬면서 조금씩 정리한 생각으로 자유란 옛날 우리가 학교에서 외우던 그대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방종과 다르다는 것이다. 헌데 내가 대하던 아이들과 부모들 일부 교사들은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만, 왜 그리도 그 자유라는 것에 얽매어 유아교육은 무조건 아동 중심적이어야 하며 모든 생활의 출발점이자 활동의 시작이 아이들의 욕구와 흥미에서만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하는지,,,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이 허무맹랑한 자유라는 단어에 불모가 되어 교사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빼앗겨왔는지 모른다. 너무나 귀한 아들 딸들이라 서인지 요즘 아이들에게는 방종이 무한대로 허가되어 있다는 사실은 실로 경계해야 할 일들이다. 그 방종의 형태가 어찌나 심각한지 요즘엔 루소가 왜 아동의 내적 자발성에 의한 자유방임주의 교육을 펼쳐 오늘날 사상의 근거가 되도록 했는지 원망스러울 정도다.

내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확실히 선을 긋고 싶다. 자유와 책임의 조화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교사가 현장에서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가지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선 그만큼의 소양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끊임없는 연찬이 요구되지만 우리 보육 현실이 교사를 연수나 받으러 다니라고 편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더욱 힘들어 진다. 고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마치고 저녁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늦은 밤 교육을 받는 교사들이 허다하다. 그것도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부모들과 현장에서의 마찰은 또 얼마나 큰가 ... 이러니 교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매일 교사가 된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교사와 함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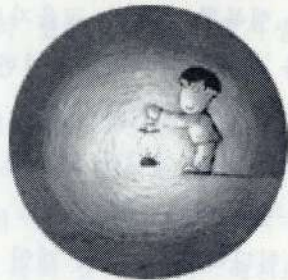
아이들도 그 기운에 젖어들게 될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현장에서 묵묵히 나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참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중도 하차한 주제에 별로 쓸 말이 없어야 하거늘...

하지만 교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언제까지 의욕과 신념만으로 보육계가 지속되어선 안된다. 교사의 턱없는 희생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아이들의 행복은 절반의 의미밖에는 되지 못한다. 아동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행복과 아이들의 행복을 조화롭게 이루어내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답답한 현실에 대해 딱히 해결책도 없고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나 자신도 어쩌면 이기심에 젖어있는데 하도 요즘 교육현실이 답답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인생이 잘난 부모와 귀한 아이들 뒷전에 묻혀 희생되고 있는 것 같아 아동관을 쓰라고 한 교육부의 말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 두서없이 글을 써보았다.

아동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이 가지는 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아동관 2

아이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 아이답게 키우자!! 즐겁게 놀 줄 아는 아이로 키우자!!

안미경 (해맑은세상어린이집)

- 교육부 주관으로 교사들의 교육관, 아동관을 정리해보는 자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안미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교육관입니다.(편집부)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사람이 어떤 일에 즐거움과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외부의 구속이나 제재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그 일 자체에 몰두하여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일은 무엇일까? 바로 놀이이다. 아이들은 노는 것이 일이고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는 생명이며 삶의 길이며 성장발달의 원동력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놀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것이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은 매우 신비스런 힘이며 인간의 지혜로 가르칠 수 없는 하늘이 내려준 갓난아기의 지혜이다. 갓난아기가 젖을 빠는 것은 젖을 빨지 않으면 쇠약해진다던가 죽는다던가 하는 알팍한 계산에서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유아기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이고 자연의 지혜이다. 아이들의 놀이를 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놀이는 아이 안에 있는 것의 자유로운 표현이다.

놀이는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자기 자신의 안녕과 세계와의 화합을 만들어 내는 초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시기 아이들의 온갖 놀이는 미래 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시기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고 청정한 표현은 자신의 놀이 속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과 놀이에 완전히 빠져서 노는

사이에 잠들어 버린 아이들이다. 힘껏, 자발적으로 묵묵히 참을성 있게 몸이 피로할 때까지 끝까지 노는 아이들은 반드시 힘차고 과묵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인간이 될 것이란 믿음이 선다.

즐거운 아이의 생명은 다시 말해서 놀이이다. 아이들은 마음껏 신나게 뛰어 놀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하늘이 내린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부모나 교사나 국가가 인위적으로 목적으로, 필요한 기능과 편의, 이해 득실에 의한 얕은 지혜로 아이들의 놀이를 마음대로 제약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그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유아기 때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들이 받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을 것이다.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한다. 아이들의 놀이는 꿈과 희망을 키워준다. 산, 들, 개울, 하늘, 별, 메뚜기, 개미 따위의 자연과 함께 하는 놀이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길러주고 자연의 순리를 깨닫게 한다. 또래와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놀던 놀이는 꿈과 희망은 물론 사람의 도리를 익히게 된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아이들은 자연과 놀이를 잃어버리고 아이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어른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

오늘날 성인들이 해야 할 가장 절실한 것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 주는 일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는 아이들을 유아교육이라는 미명으로 방안과 교실에 가두고, 안전을 핑계로 자연과 멀리하고 바깥놀이를 제약하며 사회 적응훈련을 목적으로 분절로 계획된 시간과 영역별로 배치된 공간에 묶어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아이들 만포자기로 풀어놓자는 얘기는 아니다. 누구누구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속성 발달되기를 재촉하지 말고 좀 더 느긋하게 아이들 스스로가 깨닫고 뭔가를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 주자는 이야기이다. 부모들의 욕심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을 망칠 수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육아 일기

재은이의 하루

김경혜(까치 선생님)

2001년 6월 7일

아침에 까치가 온다.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병원에 갔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11시 30분 피가 보인다. 이슬인지? 내진에 의한 건지? 양수 비슷한 것도 나오고.

6월 8일

12시 경민이 아빠가 빵을 싸왔다.(나의 부탁) 같이 먹고 남편은 잔다.

12시 30분, 40분, 50분. 진통이 온다. 3시 넘어 남편을 깨웠다. 이번엔 진짜다.

아름병원을 다니다 한달 정도전에 '황금넷 똥을 누는 아기' 책을 보고 조산원으로 바꾸었다.

진통이 심해진다. 남편은 허리를 주무르고 조산사는 배를 쓰다듬고.

자궁문이 3-4cm열렸으나 자궁이 깊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6시쯤 양수를 터트리는데 어떻게겠느냐고 묻는다. 손가락으로 하면 아기가 훨씬 쉽게 나온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

분만대에 올라가 터트렸는데 내려와 걸고 싶었지만 내려올 수가 없었다.

살을 찢는 아픔에 고통만 나왔다. 남편이 들어와 손을 잡아주자 좀 나왔다.

민는 구석이 있다는 건 참 큰 힘이다.

6시 30분 아기가 나왔다. 여자 아기란다. 혹시 했는데 예감이 맞았나 보다.

눈에 쌍꺼풀도 있고, 다리도 좀 길다. 어머니가 들어와 집에 미인 났다며

기뻐하신다. 그리고 남편이 분만실에서 나와 쓰러져 손자보다 아들 죽는

줄 알았다며 걱정도 하신다. 경민인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말려서 못 왔

다며 입이 나와 있다.

밖이 추워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씻겠다. 더 벗겨 놓고 싶으면 조금 있다 벗기란다. 빨간 아기 얼굴을 보니 벗기기가 겁이 난다.

7시 30분 벗겨두는 건 포기하고 풍욕을 했다. 벗고 20초 이불 덮고 1분.

...

8시 많이 온다. 여기 조산사는 6시간 내에 안 먹이는 게 좋다며 12시 30분에 물을 주겠다. 아기가 우니 심란하다. 잠도 오고. 9시 30분 내 먹으라고 준 물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대어 주니 그것을 뱉다. 기분이 묘하다. 이렇게 어린것이 빨기도 하다니! 몇 번 그렇게 하니 잔다.

6월 9일

서울에 한 몸 짓기 공부하고 집에서 애 둘 낳아 키운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이전에도 전화를 했었다)

애들은 잘 울리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며, 분만 체온계를 양쪽에 꽂아 두어 온도가 같아졌을 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 민들레를 삶아 먹으면 젖몸살에 좋다는 얘기, 속을 좌욕 하듯이 찜질하면 좋다는 얘기를 한다.

저녁 후배알이가 심하다. 참다가 1시에 아스피린을 먹었다. 둘째가 더 배알이가 심하단다. 속을 미리 준비해 뒀으면 좋으련만.

젖이 조금 돈다. 아기가 젖을 빨다 잔다.

신생아를 보는 건 참 신기하다. 그러나 그만큼의 책임도 느껴진다.

6월 10일

6시 40분 아기가 울어 젖을 물리니 젖이 나온다는 느낌이 온다. 정확히 48시간이 지나니 젖이 나온다. 36시간쯤에 젖이 돌고 있다는 느낌이 오더니.

젖이 나오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한다.

풍욕을 두 번 시키고, 남편과 냉온욕을 시켰다.

6월 11일

4시 똥이 암갈색이다. 얼굴에도 무엇이 나고. 열꽃인가? 황달기도 있다.

10시 풍욕을 시키니 얼굴이 조금 나아진다.

2시 똥을 누는데 색이 좋다. 황금색? 노-랴다.

젖이 제법 아프다. 짜야하나? 말아야하나? 젖 마사지를 네 번 했다. 저녁

엔 남편이 하고 잤는데 너무 과했나 아린다. 민들레 물을 마셨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냉온욕을 시키는데 잘한다.

후배알이는 거의 가라 앉았다.

6월 12일

30분, 1시간, 2시간, 수유시간에 잠이 없다. 손을 탔는지 안으면 놀다 내려놓으면 온다. 소리에 민감하다.

적꼭지에 상처가 났다. 냉찜질을 해야겠다. 적도 짜내고(이때까지는 적이 너무 많이 붙어봐 적을 흘러내리게만 하고 그냥 참았다) 민들레 물을 마셨다. 속찜질도 하고.

6월 13일

어젯밤 30분 2시간 간격으로 수유한다고 잠을 못 잤다. 낮에도 자주 일어나난다. 피곤하여 아무 것도 못한다. 풍욕은 계속해줘야 할텐데. 얼굴은 많이 좋아졌다.

적은 오른쪽이 계속 딱딱하다. 찜질하고 수유하니 훨씬 낫다. 적이 잘 나온다. 배꼽이 떨어졌다. 6일째인데. 경민이보다 하루 빠르다.

6월 14일

젖이레 밥과 국을 떠놓고 벨었다. 건강하게 해 달라고.

배내짓이라지만 아기가 잘 웃는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

어제 밤에는 2시간씩 잤다. 좀 편하다.

보건소 갔는데 황달기가 있어 간염 예방 접종은 안하고 선천성대상이상검사만 했다. 피 뻘다고 죽는다고 온다.

풍욕하고 일광욕 1분하다.

그 뒤

15일 조산원에 갔다. 아기가 3.5kg이다. 잘 키웠네요한다. 기분 좋다. 그러나 황달기가 없어질 때가 되었는데 있으니 검사를 한번 해보란다. 그냥 두고 싶는데 예방 접종이 걱정되고, 어머니도 검사를 하자고 하여 현대 병원에 가서 했다. 약을 일주일 정도 먹으란다. 형광등도 켜두고.

이 때까지 형광등이 안 좋다고 하여 조명등을 켜고 지냈는데 어쩔 수 없다. 3주 정도는 형광등을 켜지않는게 좋다는데. 다 포기하고 형광등을 켜

다. 일광욕하면 좋아지겠지만 앞으로 장마가 온다고 하니...
그 뒤 해 나오면 일광욕하고 아침 저녁 풍욕, 형광등 켜고 사는 생활을 했다. 1주일 뒤 검사하니 좋아졌다. 그냥 돌걸. 모유황달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데.

BCG 예방 접종을 했다. 조산원에서 애기를 낳으니 이런 게 안 좋다. 낳을 땐 좋았는데 아기관리가 안 된다. 예방 접종후 그 뒷날 엄청 보챈다. 낮에 거의 잠을 안 잔다. 안겨 자고 그것도 잠깐씩. 경민이가 감기를 하더니 애도 감기기가 있나보다.

8월 28일

애 키우는 일이 즐거워진다.

어제오늘 오전 오후로 길게 자고 있다. 늘 30분 - 1시간 자고 일어나더니 이제 길게 잠드는가 보다.

참 불안하고 긴장했는데. 이제 적응도 되고 여유도 생긴다. 백일이 가까워지니 애가 달라지고 있다. 계속 이렇다면 애를 한 명 더 낳아도 되겠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내 밥부터 챙겨먹고, 빨래 넣고, 경민이랑, 애아빠 아침 선식 타놓고 나면 다시 애가 보채 애를 재운다. 이렇게 하기에 몇 주가 걸렸다. 늘 빨래를 너는 것이 힘들었다. 잘 때는 언제 깰지 몰라 밖을 못나가고 깨어 놀 때는 잠시라 빨래를 다 못 넣고. 그래서 애가 잘 때 조금 먼저 일어나 하자고 했더니 애가 먼저 알고 더 일찍 일어난다. 다행히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잘 노니 밥 먹고, 빨래 넣고를 다 할 수 있다. 경민이가 일어나면 봐주기도 한다.

8월 29일

아침에 일어나 한 번 안아 재우고 두 번째부터는 이불을 흔들어서 재웠다. 왜 그냥은 안 자는지! 안고 흔들고, 흔들 침대로 흔들고, 이불로 흔들고. 흔들어서 재우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준이다. 자기도 공포스러운지 손과 발을 오므리면서도 흔들지 않으면 잠을 안 잔다. 많이 흔들어서 재워서 인가? 요즈음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안 누워있을려고 한단데 왜일까? 차의 영향이 있는 걸까?(만국 내 생각) 지리지도 안자는 하루다.

8월 31일

8월이 간다. 더위가 이렇게 무서운 건줄 처음 알았다.

아이는 우리 집이란 작은 구조물보다 기온, 바람, 공기, 해등 그날의 날씨, 계절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더울 땐 어찌나 짜는지!

그리고 어제 그제는 날 흐리고 비온다고 많이 보챈다. 우주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다더니 정말 그렇다. 집 환경에 신경을 써 주는 건 아주 작은 일이다.

아이가 놀 때 그냥 두는 것이 쉽지 않다. 언제 내가 개입해야 할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내가 저를 보고 있으면 저도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열심히 본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잘 놀고.

그래서 놀 때 그냥 돌려니 쉽지가 않다.

9월 5일

밤 1시에 기저귀를 갈고 그냥 잔다. 이때 까진 기저귀 갈면 먹여야 잤는데 그냥 자니 너무 좋다.

주먹을 보고 빨고 논다. 침도 제법 흘리며. 그리고 손으로 하는 놀이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주먹가위보자기, 막대하나등.

자기 의사 표현도 점점 정확해진다. 모넬이 돌아가면 소리내어 웃고 그치면 울고.

고개도 제법 세우고.

12월 9일

여섯달인 날 드디어 뒤집기를 했다. 며칠 뒤집으려고 하더니 머리를 못 들어 늘 다시 바로 눕더니 드디어 아침에 일어나 뒤집기를 연이어 두 번 한다. 그러나 낮에는 한 번도 안 한다. 좀 늦다. 2개월 때는 뭐든지 빨리 할 것 같더니 모든 신체 발달은 좀 늦다.

이빨은 아랫니 두 개 나서 뭐든지 물어뜯고, 이유식도 잘 먹었다.

엄마를 알아보고 나에게 안겨있으면 좋아한다. 물론 낯선 사람 보면 울고. 그래도 매일 한 번씩 보는 사람은 낯을 안 가린다.

그리고 앉아서 잘 논다.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앞과 뒤에 이불을 깔아 놓고. 언니를 좋아한다. 괴롭히기도 하지만 노래랑, 놀이를 해주니 언니 오면 좋아 펄펄 뛰다. 엄마가 해주는 놀이랑 언니가 놀아주는 것이랑 차이가 있나

보다. 경민이가 하면 훨씬 크게 웃는다.

조막조막을 이틀 하더니 이제 안 한다. 웃긴다. 한 번 배웠으면 계속해야지 손으로 조막을 하면 오라는 줄 아는지 몸까지 내민다.

수유는 3-4시간 간격으로 한다. 밤에도 한 번 이상하고. 밤에 수유를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찡찡거리면 잠결에 젖을 먼저 물리고 만다.

6개월 들어서며 오줌을 모아 싸는 것 같다. 처음엔 작게 먹어 그렇나 했는데 아니다. 오줌 양이 많은 것을 봐서 모아 싸는 것 같다. 기저귀 빨래가 적으니 빨래가 훨씬 줄었다. 기쁘다.

여름엔 늘 씻겨, 그것도 냉온욕 했더니 피부가 짓무르거나 땀띠가 없더니 요즘 사흘 나흘에 씻기니 목 손가락 사이가 잘 짓무른다. 아침저녁으로 씻 기고 연고 바르고 해도 손가락 사이는 잘 안 낫는다.

이 글을 적으니 그 때가 언제였던가 싶다. 아이는 커서 금복주 같은 커다 란 얼굴로 나를 보는데. 영아는 참 금방 크는 것 같다.

- 제은이 쓰는 이야기를 계속 연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번에 모았습니다. 지면 때문에 부분 생략을 많이 했어요. 양해바랍니다.(편집부)



회원글

신혼이라?

박희순(코끼리 선생님)

신혼이라?

둘 만의 생활이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때 인 것은 같은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집안과 집안의 위임인지라

- 특히 여자는 시집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집안 어르신들과 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해야 할 도리, 행사참여 등. 내 생활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들이 처음엔 참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이왕 내가 선택한 내 위치에서 내 존재의 역할이라면 행복한 맘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성실하게 임해야한다는 그리하여 잘 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래도 무지 행복하다. 새삼스럽게 친정엄마에 대한 더 각별한 생각과 고마움에 우짜등등 열심히 사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라는 각 성도 하고.

무심한 척 속정 깊은 시어머니 사랑에 또한 잘 해 드려야지 생각 하고, 당신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자주 앉혀 놓고 미주알 고주알 이 야기하고 싶어하시는

“나는 니를 좋아한데이~” 해주시는 시아버님 (시댁에 갈 때마다 홍시를 어떻게 하면 안 터지게 잘 들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 - 혹시 비결이 있으시면 갈카 주세요 - 아버님은 홍시를 무진장 좋아 하신 답니다.)

가만 생각하면 둘 만 잘 살면 그뿐인 삶이 아니라서 의무감처럼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세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초기엔 많이 싸우고, 대책 없이 막막하고, 이 난국을 우에 풀어야 하나 고심한 적도 참 많았다. 결국 서로에 대한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피차 살아온 환경, 가치관등이 달라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겠거니, 서로 함께 만들어 가는 성숙한 삶(?) -사랑에도 방법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하고 무한한 노력이 있어야하는 관계가 아닐까?- 이론은 그런 것 같은데 참 사소한 것으로 뼈걱하고 잘 다투게 된다.

흑!흑!흑!- 우린 방금도 싸웠다. 오랜만에 말다툼이긴 해도, 좀 있다 2 라운드를 해야 하겠지. 기냥 마음이 풀릴 때 꺼정 기다려 볼까?

그래! 이렇게 싸우고 풀고 서로 길들여지며 살아가는 것이리라. 눈에 보이는 커다란 환상이 아니라 조그맣게 점점 내 것으로 다가오는 삶.

기껏 내게 품 잡아도 내 사랑하는 낭군님이 어디 가랴.
사랑하요. 이 겨울 그래도 우린 함께 있고 내년엔 우리의 귀염둥이 딸이 함께 하겠지요.

참 민망하지만 재미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 하구요.
부모회 옆구리 시리신 분들 그래도 결혼은 해볼만한 것 같은데요.
(카! 카! 카!)

부디 모든 분들이 이 겨울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구요.
내년엔 나도 전업주부로 살 행운을 빌어 바랍니다.
부모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참가기 1

한보회 중간 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김순아

11월 초, 회장님이 한보회 주최로 연수를 하는데 아이도 데리고 갈 수 있고 프로그램 또한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쉽'(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제공된다고 가잔다.

올 가을 단풍 구경 한 번 제대로 못한지라 다른 말들은 다 흘려두고 '쉽'이라는 말만 머릿속에 가득 넣은 채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자 함께 남원으로 떠나기로 했다.

11월 23일, 사상터미널에 선발대인 회장님, 정애 선생님, 나 그리고 강산, 온비, 민호, 창호, 승우가 힘겹게 모여 아슬아슬하게 버스에 올라탔다.

후발대인 양희 선생님과 동하, 그리고 미애 선생님은 어린이집을 마치고 오기로 했다.

아이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해 걱정을 했었지만 다행히 먹고, 자고 하면서 무사히 남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남원은 예상외로 가까운 거리였다. 3시간이 소요됐으니 말이다.

남원터미널에서 숙소인 한국콘도까지도 5분밖에 안 걸려 주최측에 고마움이 느껴질 정도였다. 아이를 데리고 오랜 시간 차를 탄다는 것이 고역임을 엄마가 아니더라도 보육교사라면 다 알 것이다.

일단 짐을 풀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여드는 동안 콘도 앞 강변에서 놀았다.

남원은 건물들이 다 나지막하고 조용하며 강변 주위에 모여 든 사람들조차 한가로이 보여 모두가 "이런 곳에 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사람들이 속속 모여드는데 우리 승우보다 더 어린 백일 된 아기부터 사흘간 강산이의 단짝이 되어준 한결이(초등5)까지 아이들만 20명이 넘었다. 한결이는 수련회 내내 우리 승우를 끔찍이도 귀여워 해주었고 마지막날 해

어지는 걸 무척 아쉬워하는 걸 보면서 아이나 어른이나 사람 좋아하는 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 일정은 남원 하면 떠오르는 광한루 관광(?)이었다. 콘도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가는 길에 떨어진 싱싱하고도 탱탱한 낙엽을 서로에게 뿌리며 “그래 이거야!”하면서 난 역시 자연을 접해야 생기가 도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이몽룡과 성춘향이 놀았다는 광한루에도 올라가 보고 월매집에도 방문한 후 한 권에 마련해 놓은 널뛰기, 투호, 그네 등의 민속놀이를 해 보았다.

아이들을 가운데 앉힌 후 뛰어 보는 널은 서툴긴 했지만 모두가 신명이 났고 길다란 줄에 매달린 그네 또한 스틸 만점이었다.

한바탕 놀고 난 후 돌아가니 공동 대표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 놀고(서울 지부 이선주, 박인혜 선생님이 아이돌보미를 해 주셨다) 어른들은 첫 번째 강의에 임하러 한방에 모였다.

첫 강의는 이윤경 대표님의 “리더쉽과 대중조직화”였다.

머리가 좀 아파오긴 했지만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해 오신 이윤경 대표님의 성의를 봐서 열심히 들으며 분위기 파악에 힘썼다.

강의가 시작되고 조금 지난 후 미애 선생님과 양희 선생님과 그리고 동하가 들어왔다. 보육일을 마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신 두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더욱이 미애 선생님은 며칠 전 몸살로 결근까지 하셨다고 했다.

“리더쉽과 대중조직화”강의는 이제껏 내가 고민하지 않은 회장님 이하 간부들이 하는 고민이라고 미뤄와 다소 생소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고민임을 느끼며 벌써부터 책임감 같은 게 밀려 오기도 했다.

첫 날의 일정이 끝나고(새벽 1시) 부산 숙소에서 모여 담소를 나누는데 그때 우리 승우가 깨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엮고 나가잔다. 복도에 엮고 나가니 눈이 말뚱 말뚱해지면 다시 잘 기세는 전혀 아니었다. 요구사항을 들어 주다 도저히 안돼 엉덩이를 몇 대 때린 후(정말 그러면 안되는데) 겨우 재워 눕히니 잠이 없는 동하 또한 엄마랑 실랑이를 하다 2시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수련회 둘째 날 해가 떴다.

둘째 날은 내가 고대하던 ‘쉽“의 날이었다.

관광버스를 타고 지리산 자락을 휘돌아 실상사, 노고단 아래 고개까지 가 보고 마지막으로 지리산 온천랜드에 가서 온천욕(사실 말이 온천욕이지 때 베끼느라 정신이 없었다)을 즐겼다.

그 중 실상사는 참으로 범상치 않은 절이었다. 절 입구에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대한 비판의 글귀부터 시작해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을 담은 사진 전시, 생태 뒷간까지 절 구석 구석에 스님들의 의식이 살아 숨쉬는 듯 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두부마을’이라는 식당에 가서 두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맛보았는데 거기서 동하가 2층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 사이에 난 틈에 빠져 떨어지는 바람에 큰 일이 날 뻔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저녁을 든든히 먹고 숙소로 돌아와 그 날은 아이들을 일찍 재운 후 10시 쯤 두 번째 강의를 들었다.

주제는 ‘중장기 3년 계획 세우기’였다. 강의 시작 전 원활한 의견 개진을 위해 다섯 장의 발언 카드를 나눠줬지만 난 끝날 때까지 한 장 밖에 못 썼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였다. 둘째 날 또한 분위기 파악에 힘썼는데 영 말을 안하는 내가 신경 쓰였는지 이기원 대표님이 맨 마지막에 말할 기회를 하사하셨다.

이제껏 평회원으로서 편안하게 사고 할려고 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년엔 부모회, 한보회를 진정한 나의 조직으로 받아 안아 중간 간부로서 일을 해 보겠노라는 의지 표명을 하자 모두들 감동의 박수를 쳤다.(박수는 안쳤나?)

강의를 마치고 나니 2시가 넘었던가? 자고 싶었지만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 선생님과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누었다.

난 수련회든 총회든 전국 단위의 행사엔 처음 참석하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처음 뵈었다.

하지만 전혀 낯설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애정이 느껴지면서 내가 지금껏 부모회에 받을 빠지 못하고 있는 끈끈한 정을 한보회 선생님들에게도 느낄 수 있었다.

분위기 무르익을 때쯤 먼저 자리 간 미애 선생님이 승우를 안고 나타났다. 첫날 밤의 악몽이 되살아나 급히 승우를 데리고 가 재우면서 나도 잠이 들면서 들쭉날쭉도 그렇게 저물었다.

다음날 아침 시누이가 애를 낳았다는 전갈을 받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부랴부랴 짐을 챙겨 10시차를 타기 위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남은 일정을 함께 하지 못한 채 부산으로 왔다.

지면으로나마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만나 뵈어 기뻐고 그리고 실무에 신경 쓰느라 고생하신 대표님들, 이경녀 선생님, 이선주 선생님, 박인해 선생님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리고 엄마 때문에 고생한, 아니 즐거웠던가? 하여튼 2박 3일간 별 탈 없이 지내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참가기 1

한일 보육교류 활동을 다녀와서

김은령 (은방울, 씽씽 어린이집)

글 하나.

죄송스러운 맘으로 조금은 불편한 맘으로 가는 연수라서 설레임이나 준비도 없이 시간이 그냥 흘러 갔다.

허둥지둥 일요일 짐을 챙겨 서울에 있다가 월요일 인천에서 집결.

저번에 만나기는 했어도 광주에서 4명, 서울에서 2명, 부산에서 혼자라 많이 어색했다.

공항에서 지리한 시간을 보내고 드려 출발한다.

2시간 정도 있다가 간사이 공항에 도착. 누군가 그랬다. 간사이 공항은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난 두려웠다. 우리일행 중에 양팡맨(호빵맨)도 있었거든. ^^

그곳에는 희망의 문 전문이사님인 히구치 선생님과 야간 보육소 원장이신 김혜영 쌤 그리고 성애원에 계신 구사바샘이 마중을 오셨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우리가 머물 숙소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일정과 연락처를 다시 교환하고 환영식이 있는 성애원으로 갔다.

난 차려진 음식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런지 어렵게 외운 일본어 인사 말도 잊고 말았다. 흐흐흐 ^.^;;

그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고는 남은 음식과 술을 가지고 왔다.

저 많은 술을 언제 다먹노??

그런 생각은 그날 밤 이후 다시 하지 않았다.

담날 부터 난 광주 다른 쌤과 희망의 문에서 실습하였다..

그 곳 선생님이 길 안내를 위해 왔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역을 외워야 했다. (한자는 山 밖에 모른다...)

신경 바짝 곤두세워서는 지하철을 나오는 그곳에 계신 남자샘이란다.

난 금방 머리 아픈 것도 잊었다.

몇 명이나고 안되는 일본어로 물어보니 푸하하! 8명이란다.

나의 실습에는 웃음만 있으니 잔뜩 기대를 하였다.

글 들.

자~그럼, 조회수 20을 넘었으니 더 연재를 해 볼까나.

그날은 첫날이니, 당연히 시설 오리엔테이션만 듣고 시설 보고 나면 빨리 끝나겠다 싶어 우리끼리 쇼핑 하자는 약속을 했지만 점심 1시간 전부터 바로 실습에 들어갔다.

난 영아반에 먼저 들어 갔는데 아이들이 나에게 텃새를 부린다. 울고 외면하고.

울고 외면하는 아이들이 낮가림이 심한 아이들 몇 명과 온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안 되는 말과 몸짓으로 겨우 알아들은 내가 생각만 해도 대단했다.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하는데 서로 통했으니.

하지만 그런 나의 자만심들은 곧 답답함으로 이어졌다. 평소에 말이나 적은 나라면 덜 했겠지. 제대로 못 물어봐. 책 뒤지면 없지, 일어 사전이 필요하네...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이런 것은 잠시 두고 그곳 시설에 대해 잠깐.

영아(생후 2달에서 21개월까지 있었음)와 교사에 대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 있었다.

우선 걷고 기는 아이에게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 샤워실과 주방에는 낮은 문이 있었다.(어른은 넘어다님)

아이들의 시각을 많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은 흐릿한 조명과 자연 채광 또한 천으로 한 번 빛을 걸러 내고 풍선을 올려 놓았더라.

그리고 샤워실. 용가를 한 아이는 바로 팬티 기저귀 벗겨 욕조통에 세우면 교사는 허리도 굽히지 않고 따뜻한 물로 씻길 수 있고 그곳에서 바로 침대에 눕혀 아이 기저귀를 할 수 있으며 (기저귀는 빌려서 사용) 쓴 기저

귀는 통에 담아 두면 되었다.

또 오전, 오후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 간식, 점심, 청소 등 교사를 아이와 더 많이 있을 수 있게 배려하였다.

그 곳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8시간의 노동을 엄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일일 근무시간이 7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 부러웠다. 아주 많이... 특히 점심 후의 휴식이...

(우리 연수단이 간 모든 시설이 1시간의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간 희망의 문과 성애원이 30, 40분 정도의 휴식이 있었다.)

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아이들 밥 먹이기 전에 교사가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한데 손에 소독약을 뿌리더라. 그리고, 용가하고 난 아이들 엉덩이 씻을 때 위생장갑을 끼고 씻기는 사실이...

글 셋.

너무도 오랫동안 글을 올리지 않아 리듬이 깨졌네요.

아주 간략하게 끝내도록 하겠슴당.

그래서 중간평가 때 위생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0-157 이후 철저히 했다고 하네.

아주 옛날에는 썩썩의 샘들은 스킨쉽이 부족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

하지만 생각보다 그곳에서의 스킨쉽은 굉장히 적어씀당. 우리들은 자신만 만하게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영아반에서 1주일 간의 실습을 끝내고 저는 다메와리(혼합연령)로 옮겨졌어요.

공사중이라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했지만, 10시까지 오는 선생님을 기다리며 아이들은 스미레, 코스모스 두 반이 모여서 같이 놀고 있었다.

그 후 샘이 오면 각반으로 나뉘어 잠시 있다가 모두 자유시간입니다.

운동장은 우리의 학교 운동장 만큼이나 넓었고 블럭도 종류별로 많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옷방 같은 방과 1층에는 의자 밑의 비밀 공간.

하지만 아이들이 비밀공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놀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좁게 입고 있어 샘들 한테 물어 보니 일본에는 팔과 다리를 내놓고 있어야 건강하다는 말이 있어 그렇단다. 우리는 머리는 차게 다리는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있던가.

다메와리의 일과는 놀다가 점심 먹고 놀다가 간식 먹고 놀다가 모여서 이야기 하고 집에 가더라.

그래서 또 물었지. 공사중인 건 알겠는데
질문 1 공사중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놀면 부모들의 다른 요구가 없나????

답변 1 샘 하는 말이 이곳의 방침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단다.
(음! 부러운 자신감이군..)

질문 2 그럼,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은 문자 공부은 어떻게 하나????
답변 2 하지 않는다.

질문 3 그럼, 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의 수업은????
답변 3 히라가나부터 차근히 한단다.

물론 우리도 가나다는 하겠지. 하지만 다들 알고 들어오니 차근히 할 수 없고, 진도가 빠를 수 밖에 없겠지.

그곳에도 우리의 날적이 같은 일지가 있었다.
아침에 부모가 책꽂이에 직접 꽂아 두고 오후에도 아이들과 같이 꺼내어

갔다.

물론 영아반에서도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아이 기저귀 다시 보고 사물장에 옷 챙기고 오후에도 직접 옷 입혀 데리고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생활이 다 끝나갈 때쯤 장난 심한 몇 녀석들도 맘을 열어 주려고 하던데...

아쉬웠다. 참 시작은 아주 길 것만 같더니 함께 한 시간들은 아주 짧고 빨리 지나갔다.

그리그리... 아쉽지만 아이들과 샘들과 인사를 하고는 실습을 끝냈다.

내가 실습했던 희망의 문은 자유보육을 하던 곳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는지, 지금은 환경보육(영역별...)을 실시하고 있단다.

그곳 샘의 표현대로 하자면 학급붕괴라고 했다.(자리에 못 앉아 있거나...)

많은 생략과 간략하게 하니 더 어렵네요.

하여튼 그곳의 보름간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당.
좋은 샘들 많이 만나고, 멋진 샘도 만나고.

일본사람과 새벽까지 술도 마시고, 일본 사람 다시 생각하는 기회도 되었고, 아주 조아썩당.

그곳 샘들이 직업적으로는 아주 철저한 듯이 보였고, 잘 하고 있어 보여썩당.

하지만 내가 느끼기엔 음~ 뭐라 딱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라의 많은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을 알고도 뛰어드는 그런 맘이나 신념은 없는 듯이 보여썩당.

물론 보름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모든 샘들이 그렇다고도 할 수 없지만요.

어설픈 저의 느낌이겠쥬.

휴~우!

그간의 연재를 이것으로 접을립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원고를 일통 안내고 버텨서 할 수 없이 썩썩 어린이집 홈페이지에서 건져왔습니다.(편집부)

지회 및 회원 소식

■■ 회원 소식 ■■

〈동래지회〉

- 김진희 : 요즘에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바쁘답니다. 나도 특별한 소식을 적고 싶은데 별 소식이 없네요. 작품전시회 끝나면 2주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새해에는 잘 살아보고 싶네요.
- 김지현 : 요즘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엔 노는 게 좋아서 일 끝나면 집에 안가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만나고 술 마시고 했는데, 이제 모임과 특별한 약속을 제외하고는 저녁에 방황 안하고 보낼 생각입니다. 집에 일찍 가서 청소도 하구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럴려구요.
- 박경미 : 정신이 없습니다. 15일 작품 전시회 준비하느라구요. 운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는 땀구요. 녹산에서 도로 연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봉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요.
- 김지영 : 집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어린이집도 전시회 준비 때문에 바쁘고요. 안팎으로 경황이 없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전시회가 눈앞에 있으니 속이 답답합니다. 12월 25일은 기대가 안되네요. 솔로라서 가슴이 아픕니다. 며칠동안 남자친구를 만들기는 힘들겠지요.
- 윤진숙 : 작품 전시회 뒤에 있는 방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맘때만 되면 왜 사람은 겨울잠을 안잘까 늘 생각했거든요. 다른 계절엔 며칠 동안은 동물처럼 자고 싶구요. 12월 말에는 군에 간 동생 면회를 갈 생각입니다. 연말 계획이 이것밖에 없네요. 괴롭습니다.
- 김정해 : 12월 16일에 운전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돈 들이고, 주위에서 핀잔도 많이 줬는데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구 지회에 참석했습니다. 연일 회원들 생일이라 선물값이 무지 드네요.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재은이가 아파서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 김양희 : 내년에 동래지회장을 다시 맞게 되었습니다. 내년엔 더 잘해보겠습니다. 동화랑 실랑이하는 일이 잦아졌네요. 며칠 전에는 어린이집 문밖에 내보냈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이집 송년회 끝내고 동래지회 송년회도 했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도 송년회를 해야지요.
 - 손주현 : 연말이 되니 송년회니 계모임이니 너무 많은 술자리 때문에 친구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제는 술을 좀 자제해야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즐거운 연말 되십시오.
 - 이정인 : '생태 환경 실천 교육' 자료집에 코보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가는 해 잘 보내고 오는 해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절에서든 교회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삼십대에 할 일을 마감하고 싶은데 잘 안되고 있거든요.
 - 이은정 : 지난 11월 30일, 예쁜 아기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이름은 임주현이구요. 몇 달 동안 휴직하고, 다시 코보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 득남을 무진장 축하! 축하! 합니다.
 - 김혜원 : 죽을동 살동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더 정신이 없네요. 뭘 잡고 일어서려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빵모자를 씌어놓았어요. 남편이 방학하면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까 하구요. 휴직교사들도 한번 모여야 할텐데-. 아줌마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너무 좋았는데 내년에 모두 일을 하게 되면 혼자 뭘 하나 싶네요.
- #### 〈금정지회〉
- 정은아 : 12월22까지 일하고 함께노는어린이집을 정리했습니다. 1월달 서울올라가면 새로운 결단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배도 불러오고 온종일을 시댁식구들과 지내느라 몸과 마음이 가뻐하진 않습니다. 둘리가 그리운 회원들을 위해 총회때 화려한 외출이 연출될지 기대해주세요!.
 - 나선임 : 친정 동생이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인도에 있던

친구가 와서 만나고..., 그래서 연말이 바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순아 : 라식 수술의 일종이 라섹 수술을 하고 회복을 위해 집에만 있습니다. 라섹은 라식보다 회복이 느려 아직 완전한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곧 밝은 세상이 나에게도 도래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사도 합니다. 12월엔 일이 참 많네요.

● 조영미 : 이 때쯤이면 별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별일이 없어 괴롭습니다. 12월 7일 어린이집 예술제 성황리에 마쳤고요. 연말이라 저녁마다 모임이 많네요.

● 서행선 : 공동육아 관련 책보고 공부하고 있구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어린이집 방학입니다. 그 때 남편이랑 서울 동생집에 놀러갈려구요. 눈구경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 안미경 : 뱃속 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을 해야 해서 모임에도 잘 나갈 수가 없네요.

● 강영희 : 1월 초 일주일간 방학이었습니다. 11시까지 자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방학이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 홍정미 : 내년부터는 방과 후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하고 있는 야학에서도 버거운 역할을 맡아서 두 가지 일을 잘 해낼 지 걱정입니다. 보육교사회에 시간을 내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 강민정 : 어린이집 잔치가 끝나서 여유가 좀 생기네요. 1월 13일 어린이집 조합 총회가 있네요. 14일부터는 방학이고요. 겨울잠을 잘 계획이었는데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조.

● 김정현 : 애기가 4개월 지났습니다. 백일은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것으로 했구요. 12월 15-16일 결혼식이 있어서 애기 데리고 서울 다녀왔어요. 출데요. 특별히 하는 건 없어서 계속 바쁘네요.

● 김명선 : 사무실이 싹 변했습니다. 개조공사를 대충 마쳤거든요. 짐도 더 늘어났습니다. 후원 받은 312권의 책을 보관하기 위해 거금(?)을 썼습니다.. 1월 13일 총회가 회원들의 마음다지기, 축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총회와 신년회 때 만날 회원들의 다정한 얼굴이 그림입니다. 날씨가 얼어붙어 마음의 불을 좀 더 피워내야겠습니다.

〈진구지회〉

● 박찬주 : 아기 자람터 송년회 행사를 그 어느 해보다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서-) 이 행사가 끝날 무렵쯤은 중단한 한방 치료(영치빠가 아파서)를 계속할 것입니다.

● 한혜정 : 사진전시회를 무사히 마치고 송년회 준비로 바빠서 전시회의 허탈한 마음이 있을 틈이 없네요. 또 한해가 지나가는군요. 즐겁고 따뜻한 연말되세요.

● 최정임 : 중앙 전통 연구팀 모임이 있어 수원에 다녀왔어요. 새벽 4시까지 이야기 나누고 기차 타고 오면서 하얀 눈을 봤답니다. 무척이나 아름답더군요. 부산에도 빨리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서울 다녀와서 오랜만에 영화도 한 프로 봤답니다. 영화보다 쥐포가 더 맛있었던 것 같네요.

● 장정숙 : 칙칙폭폭에서 교사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교사가 구해져서 다행과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혼이고 스물 여덟이랍니다. 칙칙하고 가까운 곳에 살고, 유치원 교사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에요. 걱정도 해결되었으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 박희순 : 뱃속 애기는 잘 크고 있구요. 이제 8개월 됐어요. 뱃속에서 거꾸로 있었다 바로 있었다 정신이 없네요. 12월 19일이면 칙칙폭폭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교에 신경쓰고 살아야지요.

● 임정숙 : 운전면허 1종 보통 땀습니다. 날 추워지니 허리가 안 좋아져서 한의원에 다니려고 합니다. 나이는 스물 다섯인데 몸은 깎어진 오십이네요. 한사람 나가게 되니 섭섭하고, 새사람 들어오니 함께 손발 잘 맞춰나가야겠지요.

● 박은영 : 연산동에 있는 어린이 전문서점 <책마을 아이들>에서 지역에 사는 엄마들이랑 그림책 소모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아이들 책도 재미있구요. 은결이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 김은령 : '와니와 준하' 영화 봤어요. 잔잔하니 괜찮네요. 지난 9일에는 양산 친구들과 미경이샘 집에 다녀왔어요. 해맑은 세상에도 가봤답니다. 가서는 좋았는데 부산 돌아오니 찬바람은 불고 남자는 없고, 울적해서 친구랑 술 한잔 했답니다.

● 차수련 : 애들이랑 재미있게 신나게 놀고 있어요. 학교 마지막 학기 리포트 쓰고, 12월 셋째주에 있는 시험 준비도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옷도 사고-. 그런데 남자를 구해야 하는데 아직입니다.

● 정현옥 : 썩썩은 그만두고 11월부터 백수생활 시작입니다. 교육대 편입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로가 바뀌어도 부모회는 영원히 다닐겁니다.

● 윤현진 : 올해는 유난히 내년엔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네요. 나이 든테가 올 해 나는지. 딱히 뭐라 할 건 없지만 정돈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예요. 12월이 좀 끔찍한데 1월이 오면 다시 팬찮아지겠조.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고 싶어요.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어요.

사무실 개조 기금마련 바자회에서 코끼리샘을 만났어요. 집에 같이 갈려고 기다렸는데 고릴라 샘이랑 둘이 오토바이 타고 가버리는 바람에 혼자 자하철을 탔답니다.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 이미정 : 재롱잔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네요. 드디어 취미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선도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부전동에 있는 체육관에서요.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 문성주 :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어려워서 진땀을 좀 흘리고 있지만요. 이달말쯤에 새소리 선생님(이미정)이랑 육지도에 있는 절에 기도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내년엔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 김정애 : 아기자람터 자모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웬 감투 복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군요. 직책이 뭐냐구요? '서기'랍니다. 이 참에 치맛바람을 좀 일으켜보나 어찌나? 아차차! 자람터가 치맛바람이 안통하는 곳이었지요.

◆ 석미경 : 재롱잔치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네요. 한해가 지나니까 아쉬움이 남구요. 새해에도 선생님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사상지회>

★ 정경자 : 요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달 쯤 감기가 안 떨어져서 고생하긴 합니다만. 몸이 안 좋아서 힘이 들지만 어린이집일은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 김숙연 : 10월 30일에 반디 놀이방 개원식을 했구요.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려오니깐 아이들이 더 신이 났네요. 나들이길 폭도 넓어진 것 같아요. 반디 개원 후 제가 바라던 부모상의 첫 원아가 들어와 너무 기쁘구요. 추위도 잊고 신나게 뛰놀고 있습니다.

★ 전정하 : 쿵쿵에는 9월에 들어왔구요. 보육교사회 회원이 된 건 11월입니다. 민들레 선생님을 통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상지회에서 하는 미술심리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미애 : 몸이 많이 안 좋아 내년에는 쉴 예정입니다. 근데, 쉬기 위해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인숙 : 신입회원입니다. 반디랑 이웃지간에 있는 은하수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구요.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 박은숙 : 음악회 준비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데) 몸도 마음도 분주하네요. 회원님들 모두다 기쁜 성탄 맞으시고,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세요. 건강하시길.

★ 윤지혜 : 음악회 준비로 많이 바쁘답니다. 처음 해보니,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됩니다. 음악회 준비로 1년간 꾸준히 다니던 운동(궁금하시죠? '합'자로 시작되는 운동입니다)을 2주 정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들 잘하세요.

★ 최미란 : 음악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 김향진 :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속성으로 운전 면허를 땀구요(1종 보통으로!) 한돌이라는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다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김장용 무와 배추가 밭에서 쑥쑥 잘 자라 어린이집 김장용으로 보낼 수 있겠네요. 또 음악회 준비로 작품 마무리, 연습으로 정신이 없군요.

★ 허은정 : 하고 있는 일을 곧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은 김해에서 살고, 일주일에 한번 부산에 옵니다. 총회 때 얼굴 봅시다.

알고있자구요!

보육교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001년 11월부터 모성관련법안들이 바뀐것은 알고 계시죠?

출산휴가가 3개월로 연장되고 육아휴직도 모든 남녀근로자에게 해당되도록 되었지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도 해당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제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려드리죠.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90일간으로 연장되었고 급여는 2개월분은 종전대로 직장에서 (어린이집에서) 받고 1개월분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의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급대상자는 산전후휴가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어린이집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후 6개월이상

근무한 후에 출산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액은 휴가실시 직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30일분입니다.

즉, 받고 있던 월급수준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월급이 135만원을 넘을 경우는 135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출산휴가 종료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흠- 휴가기간에는 뭐 먹고 살라고 휴가가 끝난후에나 신청을 하라는건가 모르겠군요.--)

2>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산전후휴가확인서(사업주 확인-즉, 어린이집원

장님 확인을 받아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알아두세요. 출산휴가는 취업규칙과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장님이(사업주가) 90일간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민간시설에 일하고 계신분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출산휴가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자구요.

육아휴직

보육교사도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육아휴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종사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육아휴직이 있으므로 보육교사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영아가 만 1세를 경과하지 않는 기간이라면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즉, 어린이집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휴직급여가 나옵니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휴직개시일(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80일(6개월)이상 지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육아휴직후 1개월이 경과한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원장 확인)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혜택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곳이면 어디나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보육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곰곰이 생각 *^^*)

※이 글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곰곰이와 토론 마당에서 퍼온 글입니다.

보육소식

♠보육 국가지원 체계로 전환

민간부문이 떠맡아온 보육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공보육대책이 추진된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26일 <연합뉴스>와 가진 송년회견에서 '보육정책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협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민간기관이 93.4%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부문에 정부예산을 들여 형태는 민간경영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보육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육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새해 초부터 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쳐 민간보육시설 등 각 보육부문에 정부가 지원금을 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 장관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온 영아 보육시설의 확충과 직장여성들을 위한 야간 보육체계의 실현, 방과후 아이들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이 종합대책의 구체적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최근 보육정책 주무당국인 보건복지부의 김원길 장관과 두 차례 협의를 갖고 공보육 전환 방침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종합대책이 나오는대로 복지부, 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ccandori@hani.co.kr / 출처: 한겨레 2001/12/26

♣ 무상보육 확대 만5살 20%에 혜택

내년부터 취학 전 만5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농어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돼, 5명중 1명꼴로 선정된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 정도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내년도에 4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0여만명에 이르는 만5살 아동의 20%에 해당하는 13만7천여명을 전국의 차상위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도 무상보육아동 규모는 농어촌지역과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국한해 실시된 올해의 3만1천여명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8만7천명은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 보육료로 농어촌지역은 월 11만9천원씩, 도시지역은 월 10만원씩 복지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35% 4만7천명은 유치원 학비로 국공립유치원생은 월 3~4만원씩, 사립유치원생은 월 10만원씩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 468명에 그친 만5살 장애아 무상보육도 내년부터 크게 확대해 2005년까지 6500명 모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신언항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47% 수준인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을 201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등 보육사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확정했다”며 “만5살 무상보육 확대는 이런 청사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youngjin@hani.co.kr / 출처: 한겨레 2001년 12월 17일

부산보육교사회

2001년을 돌아보며

■ 1월 ■

- 4기 운영위 가동
- 한국보육교사회 신규임원 확대 수련회
- 전통교육연구소모임구성

■ 2월 ■

- 사무실 입주식 및 현판식
- 한국보육교사회 정기총회
- 교사 재교육 (효율적 부모교사역할훈련 및 보육정책토론회)

■ 3월 ■

- 회원컴퓨터교육 / 소모임가동(택견, PET상담, 그림책)
- 교사 재교육 (그림책의 세계와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 3.8 여성의 날 기념 : 부산여성노동자대회 참가

■ 4월 ■

- 녹색도시부산21 공모실천사업 당선
: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실천교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당선
: 시설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어휘력, 사고력향상 및 내면의 성장을 돕는 독서. 글쓰기지원사업

- 교사재교육(우리아이들의 미래와 통일)
- 신입회원교육(10명)

■ 5월 ■

- 어린이날 행사 : 어린이 인권마당
- 부산대 연대주점 (부산대여성문제연구회-여울술)
- 제3회 교사의 밤 자축행사
-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위한 정책교육 및 토론
- 시설아동을 위한 독서.글쓰기 자원봉사자교육
- 한국보육교사회 교육부연석회의

■ 6월 ■

-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실천교육 시작
- 1강좌 : 어린이생태교육의 이해
- 2강좌 :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우리 민속놀이알기
- 3강좌 : 자연물 놀잇감 만들기(바구니짜기)

■ 7월 ■

- 운영위 수련회
- 어린이 숲속체험교실진행 (코보/도토리)
- 어린이 통일학교 (양산 청소년수련원)
- 1평화와 통일을 여는 여성과 어린이

■ 8월 ■

- 경상권여름연수
- : 잊혀져 가는 우리옥아문화와 옛아이들의 놀이, 노래
- 여름수련회 (송정 해양청소년수련원)
- : 하나로 뭉치자! 노는데 목숨걸자!
- 부산보육교사회 단체 옷(반팔 티) 제작, 배포

■ 9월 ■

- 생태교육 4강좌 : 자연물놀잇감 만들기
- 생태교육 5강좌 : 한지보자기만들기
- 긍정. 동래지회로 분화모임

■ 10월 ■

- 보육제도바로세우기 캠페인
- 교사생태기행 1차:백양산 숲기행
- 회원가을나들이 : 진우도 생태기행(2차)
- 생태기행 3차 : 수서생물탐사(장산계곡)
- 교사재교육 : 미술치료(사상지회)

■ 11월 ■

- 한일보육교류 참가
- 한국보육교사회 중간간부훈련 수련회
- 지자체 선거대비 여성연대회의
- 주민자치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영남권 여성지도자 워크샵
-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 및 성매매 추방캠페인

■ 12월 ■

- 총회준비위원회 가동
- 녹색도시부산21 사업결과발표회 : 장려상수상
- 지방차치발전 및 여성과제제안 간담회 (보육정책부문)
- 어린이전문서점연합 후원 그림책, 동화 및 교사용 책 312권
기증 받음 (시설아동 독서, 글쓰기 사업 활용지원용)

환영합니다!

◆신입회원소개

신입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결코 후회 없는 행복한 선택임을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사랑지회 ——— 김인숙 선생님(은하수 놀이방 운영)

♡친구지회 ——— 차수련 선생님

◆새 일꾼소개

♡교육부 ——— 이미애선생님(교육부장으로 승진 축하합니다.)

김숙련선생님(신입교리 달랑달랑 한 사랑지회 원입니다.)

♡조직부, 편집부, 총무도 새 일꾼들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새해에는 금정지회가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새로운 금정지회를 이길 지회장님 기대해도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장으로 전통연구 소모임장으로 수고해 주신 최정임 선생님이 2002년에는 교육부장의 자리를 사임하고 전통교육연구소모임만을 맡아 알차게 이끌어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지난 1년동안 총무역할로 장부와 씨름해온 김지현선생님께서 총무를 사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2년이

활짝 열렸습니다!

회원여러분!

2002년 당당하고 아슬답게 장식해 나갑시다!

모두 모두 복 많이 받으시다!

밀린 회비 청산하고 개운하게 시작합시다!

2002년은 교사의 발 행사에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상의 후보가 넓쳐 나 운영위가 후보심사에 골치줄 썩이는 고락을 맛보게 합시다!

1월 13일 총회와 신년회 꼭 잊지 못할 날로 만듭시다!

1월 26.27일은 한국보육교사회 수련회와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부산에서 바리바리 올라갑시다!

1월을 부지런히 보내면 1년이 만사형통!

1월분 조직생활 부지런히 합시다!

